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πίστις 번역에 대한 분석과 제언

—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

이승현*

1. 들어가는 말

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번역가가 경험하는 첫 번째 도전은 언어들 간에 100% 호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언어는 그 언어가 속한 시대의 복합적 문화 산물이고, 언어의 의미장은 다양한 문화 배경들에 기초한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번역가는 다른 언어로 쓰인 단어들을 자신의 언어로 그대로 직역할지, 아니면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의미 있는 형태로 의역할지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번역의 매 순간마다, 특정 단어들에 대한 최상의 번역은 무엇일까에 대한 연속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번역 작업의 어려움에 더하여, 성서를 번역한다는 것은 그 번역이 가져올 다양한 파장과 함께, 연관된 성서학의 현재적 논쟁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내포한다. 필자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였던 보봉(F. Bovon)은 예수 이야기의 전개 순서에 대한 누가의 결정조차도 그의 신학적 선택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를 역사가로 볼지 아니면 신학자로 볼지에 대한 누가 신학의 오랜 논쟁

* Harvard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서대학교 신약학 부교수. shlee@hoseo.edu. 본 논문은 2022년 4월 23일 안양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113차 한국신약학회 정기학술대회 “성서번역의 이상과 현실: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에 참여하면서, 보봉은 누가가 단순한 이야기꾼(story-teller)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자였음을 강조했다.¹⁾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다양한 예수 전통 자료들과 구전 전승을 자신의 앞에 두고, 예수 이야기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조사했다고 고백한다(눅 1:1-4).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최상의 이야기 순서에 따라, 조심스럽게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한다(ἔδοξεν κάμοι παρηκολουθηκότι ἄνωθεν πᾶσιν ἀκριβῶς καθεξῆς σοι γράψαι, 1:3).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번역한 번역가들도 누가처럼 다양한 번역본들과 주석들을 자신들 앞에다 두고, 자신이 맡은 책의 본문을 시작부터 끝까지 조심스럽게 조사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번역을 한글 프로그램으로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을 것이다. 번역가들의 매 순간의 결정은, 역사가요 신학자인 누가처럼, 그들의 신학적 판단에 따른 최상의 결정이었을 것이다.

성서를 번역한다는 것은 어떤 번역가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에 의존하는 경건한 작업일 수 있다. 기도의 사람 누가처럼, 번역가는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번역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번역가의 매 순간의 판단은 번역가가 현재 소유한 신학적 전제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영향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번역가가 속한 교회적 전통, 신학적 배경과 교육, 그리고 현재 학문적 논쟁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출판사의 번역 원칙들로부터 번역가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 대한 우리의 현재 분석은, 한편으로는, 그리스어 원어 번역에 대한 번역가들의 작업을 분석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속한 그리고 선택한 신학적 전제들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다행히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가들과 필자를 포함한 비평가들은 동일한 시대에 속하여 동일한 신학적 문제들과 함께 씨름하고 있다. 이 사실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매개로 한 우리의 비평적 대화가 현대 신학적 주제들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이 논문에서 본 연구자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바울 신학의 핵심 개념인 πίστις를 어떻게 번역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물론, 여

1) 참조, F. Bovon, *Luke the Theologian: Fifty-Five Years of Research (1950-2005)*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6); C. K. Barrett, *Luke the Historian in Recent Stud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0); I. H. Marshall, *Luke: Historian & Theologian, New Testament Profil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8); D. P. Moessner, *Luke the Historian of Israel's Legacy, Theologian of Israel's 'Christ': A New Reading of the 'Gospel Acts' of Luke* (Berlin; Boston: De Gruyter, 2016).

기서 본 연구자는 명사 πίστις와 함께, 동사 πιστεύω, 그리고 형용사 πιστός를 함께 조사할 것이다. 바울 신학에서 그리스어 단어 πίστις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단어에 포함된 현대적 논의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제한성 때문에, 우리의 분석은 πίστις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주요 본문들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석은 (1) 갈라디아서의 주요 본문들에서 πίστις를 포함한 주요 그리스어 표현들에 대한 현대 신학적 전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후, (2)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보여주는 번역을 그리스어 원문과 비교하고, (3) 각각의 경우에서 번역가가 취한 신학적 입장과 결정에 대해서 논의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추후 번역 수정 작업에 대한 제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2. 선포되는 예수-복음과 ἡ πίστις(갈 1:23)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ἕτερον εὐαγγέλιον, 1:6)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이다.²⁾ 갈라디아서의 시작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부활한 예수와의 만남과 회심, 그리고 그로부터 전달받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알려 준다(1:10-16). 그리고 1:23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 소식을 접한 유대 땅의 교회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³⁾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한때 송두리째 없애려고 했던 그 믿음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ὁ διώκων ἡμᾶς ποτε νῦν εὐαγγελίζεται τὴν πίστιν ἣν ποτε ἐπόρθει

흥미롭게도, 갈라디아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πίστις는 정관사와 함께 등장하면서, 그리스어 동사 εὐαγγελίζεται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새한글성

2) 갈라디아서의 역사적 배경과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 포함된 여러 논문들을 참조하라. 참조, M. D. Nanos, *The Galatians Debate: Contemporary Issues in Rhetorical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2), 321-434.

3) 이후로 모든 한글 성경은 특별한 설명이 추가로 제시되지 않는 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으로부터 가져올 것이다.

경 신약과 시편』은 πίστις를 “그 믿음”으로, εὐαγγελίζεται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번역한다. 바울 당시 로마인들의 용례에서 πίστις는 사회 관계망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신뢰 관계의 토대인 상호 신뢰를 의미했다. 고전학자 모건(T. Morgan)은 예수의 처음 제자들이 이 단어에 대한 로마인들의 용례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전제하에서, 이 단어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성도들 간의 신뢰 관계’로 해석한다.⁴⁾ 그러나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에게 그리스어 단어 πίστις는 하나님과 예수를 향한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수행한 특별한 역할과 더불어, 예수와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의미했다.⁵⁾ 따라서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으로 οἱ πιστεύοντες를 사용했다(갈 3:22; 고전 1:21; 롬 3:22). 바울 서신서에서 대략 17번 정도 등장하는 이 현재 분사형 표현은 인간의 믿음 행위를 특별하게 강조하는 반면에, 그 믿음 행위의 목적어가 생략된 채 발견된다. 칠십인역에서 유대인 저자들이 이 그리스어 동사의 목적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목적어가 결여된 채 발견되는 그리스어 표현 οἱ πιστεύοντες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계시하는 전문용어였음을 알려 준다.⁶⁾ 물론, 초대교회의 공통된 믿음의 대상은 예수와 그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한 하나님이다. 따라서 이 그리스어 표현은 예수를 따르고 경배하는 초대교회를 유대교와 다른 이방 종교들과 확연하게 구분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 정체성의 표식으로 기능했다.⁷⁾

갈라디아서 1:23에서 바울이 그 어떤 설명도 제공하지 않은 채 ‘그 믿음’(τὴν πίστιν)을 단순히 언급한다는 사실은 이 단어가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공통된 신학적 용어군들 중 하나였음을 알려 준다. 회심 전 바

4) T. Morgan,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Pistis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Empire and Early Church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265-266.

5) N. K. Gupta, *Paul and the Language of Fait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20), 148-149; P. Oakes, *Galatians*, Paideia: Commentaries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5), 85; 이승현,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 신뢰, 믿음, 혹은 순종? - 모건(T. Morgan)의 Πίστις 이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 (2021), 168-195.

6) J. D. G. Dunn, *Beginning from Jerusalem, Christianity in the Making* (Cambridg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Co., 2008), 9; R. S. Schellenberg, “Οἱ πιστεύοντες - an Early Christ-Group Self-Designation and Paul’s Rhetoric of Faith”, *New Testament Studies* 65 (2019), 33-42; P. R. Trebilco, *Self-Designations and Group Identity in the New Testamen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72-121.

7) J.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1993), 84; M. C. de Boer, *Galatians: A Commentary*,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103.

울이 ‘그 믿음’을 파괴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은 이 단어가 내포한 신학적 중요성을 반증한다. 그리고 회심 후 바울이 ‘그 믿음’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은 이 단어가 부활한 예수가 바울에게 요구한 사도적 책무의 핵심 내용임을 알려 준다. 갈라디아서 1:16, 23 그리고 고린도전서 15:1을 비교해 보면, ‘그 믿음’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복음’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갈 1:16) 그 아들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도록
εὐαγγελίζωμαι αὐτὸν ἐν τοῖς ἔθνεσιν

(갈 1:23) 그 믿음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εὐαγγελίζεται τὴν πίστιν

(고전 15:1) 내가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
τὸ εὐαγγέλιον ὃ εὐηγγελισάμην

여기서 우리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갈라디아서 1:23의 πίστις를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fides qua creditur)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대상’(fides quae creditur)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제시하는 바울의 의도를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 1:23에서 바울이 자신이 선포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후 2:16-20과 3:23-26에서 언급되는 믿음과 예수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수-믿음은 단순히 예수 자신의 신실한 순종의 죽음을 넘어서, 초대교회가 선포한 케리그마와 그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포함하는 표현이어야 한다.

3. 예수-믿음,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갈 2:16-20)

최근 바울 학자들 간의 가장 큰 논쟁의 중심에 섰던 학문적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바울 학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선택할 것이다. 이 그리스어 표현에 대한 헤이스(R. Hays)와 던(J. Dunn)을 따르는 학자들 간의 오랜 학문적 논쟁은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⁹⁾

8) M. C. de Boer, *Galatians: A Commentary*, 103.

9) 이 주제에 대한 주요 논쟁들과 쟁점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는 M. C.

이 그리스어 표현의 해석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본 논문에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기에, 두 견해들의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자. 헤이스가 ‘기독교적 소유격’(Christological genitive)이라고 부르는 ‘주격 소유격 견해’는 소유격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πίστις의 주어로 간주한다. 이 견해에서 πίστις는 성도들이 예수를 향하여 보여주는 ‘믿음의 반응’ 혹은 ‘신뢰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 준 그의 ‘신실함’을 지칭한다. 예수의 신실함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헤이스는 주격 소유격 견해가 인간 구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예수의 신실함에 돌림으로써, 목적 소유격 견해처럼 불필요한 선택의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헤이스의 견해에 따르면, 주격 소유격 견해는 갈라디아서 2:16의 그리스어 표현 ἡμεῖς εἰς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ἐπιστεύσαμεν(“그렇기에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습니다”)이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와 중복 되지 않게 해 준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죽음에의 순종을 말할 때, πίστις 대신 ὑπακοή(롬 5:19)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서신서 어디에서도 예수의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측면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에게 예수의 죽음은 인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표현 그 자체이다(롬 5:6-10). 이 관찰은 주격 소유격 견해의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로마서의 시작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로부터 ὑπακοή πίστεως를 기대한다고 고백한다(“믿음의 순종”, 롬 1:6).¹⁰⁾ 만약 헤이스의 견해처럼 πίστις가 ὑπακοή의 동의어라면, 바울이 로마서 1:6에서 이방인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모호해진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16의 그리스어 표현 ἡμεῖς εἰς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ἐπιστεύσαμεν이, 주격 소유격 견해가 주장하는 것처럼,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에 대한 목적 소유격 이해와 꼭 중복적인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바울은 왜 우리처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견해를 중복적 표현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할 수 없는가? 그리고 성도들의 어깨에서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성도들 개인의 믿음의 짐을 제거해 주기 원하는 헤이스의 의도에 반하여, 바울은 ἐπιστεύσαμε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제시한 구원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책임 있는 반응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 바울이 선포한 예수-복음이 구원에

Easter, “The Pistis Christou Debate: Main Arguments and Responses in Summary”,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9:1 (2010), 33-47를 참조하라.

10) 이 그리스어 소유격 표현은 크게 3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참조, B. Byrne, *Romans*, Sacra Pagina Serie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7), 45-46; R. N.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6), 79-80.

대한 인간 편에서의 책임 있는 반응을 반드시 요구한다면, 헤이스의 주격 소유격적 예수-복음 이해가 얼마나 바울의 견해를 잘 대변하는지 의문이 든다. 반면에, 헤이스가 ‘인간론적 소유격’(anthropological genitive)이라고 칭하는 ‘목적 소유격 견해’는 소유격 표현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πίστις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목적 소유격 견해에 따르면,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는 예수를 통해서 제공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도들의 긍정적 반응을 그들의 믿음으로 표현한다. 이 견해는, 헤이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예수의 신실한 희생의 죽음의 절대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에 대한 인지 속에서 인간의 반응이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통로로 기능함을 강조한다.¹¹⁾ 그러나 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견해들은 다 가능성 있는 해석들이기에, 학자들은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팽팽한 긴장 속에 이 문제를 놓아두고 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πίστις를 종말론적 사건, 혹은 예수와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의 순환적 신뢰 관계 등의 제3의 견해들을 제시하면서, 위의 두 견해들이 처한 고착 상태를 벗어나려 시도한다.¹²⁾

이제 갈라디아서 2:16-20의 πίστις를 포함한 주요 그리스어 표현들에 대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2:16에 대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서 된다는 것일요. 그렇기에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습니다 ...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οὐ δικαιούται ἄνθρωπος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ἐὰν μὴ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καὶ ἡμεῖς εἰς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ἐπιστεύσαμεν, ἵνα δικαιωθῶμεν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

여기서 우리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에 관한 전통적 견해인 목적 소유격 견해를 주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번역가는 이 표현과 연관된 학문적 논쟁을 무시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해서”라는 주격 소유격 견해를 주석에 표시하고 있다.

11) J. M. G. Barclay, *Paul and the Gif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2015), 331-574; J. M. G. Barclay, “Pure Grace?: Paul’s Distinctive Jewish Theology of Gift”, *Studia theologica* 68:1 (2014), 13.

12) 참조, N. K. Gupta, *Paul and the Language of Faith*, 148-149; B. Schliesser, “‘Christ-Faith’ as an Eschatological Event (Galatians 3.23-26): A ‘Third View’ o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8:3 (2016), 277-300.

그러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가는 아직 주격 소유격 견해에 의해서 완전히 설득 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πίστις에 담긴 성도들의 믿음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갈라디아서 2:20에 대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에서 더 분명해진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ὁ δὲ νῦν ζῶ ἐν σαρκί, ἐν πίστει ζῶ τῇ 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τοῦ ἀγαπήσαντός με καὶ παραδόντος ἑαυτὸν ὑπὲρ ἔμου

비록 2:20의 그리스어 본문에서 πίστις는 단 한번 등장하지만, 번역가는 믿음을 세 번 언급함으로써 이 단어에 담긴 바울 개인이 보여 준 믿음의 반응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여기서 번역가는 바울의 새로운 삶이 존재하는 영역이 예수를 향한 그의 믿음임을 매우 강조하고 싶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동의하고 있듯이, 그리스어 표현 τῇ 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의 정관사 τῇ는 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를 πίστις의 목적 대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¹³⁾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가 바울을 사랑했다(τοῦ ἀγαπήσαντός με)는 사실과 바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었다(παραδόντος ἑαυτὸν ὑπὲρ ἔμου)는 두 가지 사실을 향하고 있다.¹⁴⁾ 여기서 바울은 예수의 역할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의 형태로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의 희생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함’의 표현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그의 사랑’의 표현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만약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가가 2:16에서 주격 소유격의 견해를 목적 소유격 견해와 함께 설득력 있는 가능성으로 제시했다면, 2:20에서도 동일한 견해의 해석을 주석으로 제공했어야 했다. 그리고 만약 주격 소유격 견해를 따라 2:20을 해석한다면, 그 번역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예수의) 신실함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의 신실하심 안에서요¹⁵⁾

13) R. N. Longenecker, *Galatians*, WBC (Dallas: Word Inc., 1990), 94.

14) 그리스어 동사 παραδίδομι의 구속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참조, 이승현, “고린도전서 11:23의 Παρεδίδοτο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2 (2018), 45-67.

15) 참조, M. C. de Boer, *Galatians: A Commentary*, 163; S. K. Williams, *Galatians* (Nashville:

그러나 번역가는, 본 저자와 마찬가지로, 이 번역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번역은 “그렇기에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습니다”(καὶ ἡμεῖς εἰς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ἐπιστεύσαμεν, 2:16)라는 표현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의 중요성을 희석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2:16-20에서 바울의 핵심 의도는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신실함의 절대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의 중요성을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율법의 행위들의 중요성과 비교하며 강조하기 원한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회심의 때에,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의 삶에서 견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의 태도와 더불어, 그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과거 보여 준 믿음의 반응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현재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처음 믿음을 ‘더 완전하게 하기’ 원하는 갈라디아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의 신실한 순종의 절대성이라기보다는, 그의 희생을 담은 복음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의 중요성이다. 2:20의 번역에서 잘 증거되듯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이 사실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4. 믿음-들음, ἐξ ἀκοῆς πίστεως(갈 3:2, 5)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과거 안디옥 사건과 자신의 개인적 회심을 통해서 ‘이신칭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율법의 행위들을 따라 사는 삶과 비교했다. 이제, 갈라디아서 3:1-5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한다. 흥미롭게도, 유대주의자들의 설득과 도전에 직면한 갈라디아인들을 재 설득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 체험에 대해서 언급한다. 성령 체험을 주관적 경험으로 치부하는 현대 신학적 경향성에 반하여, 바울은 성령 체험을 갈라디아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회심의 가장 객관적 증거로 제시한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을 받은 근거가 그들이 행한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ἐξ ἀκοῆς πίστεως임을 상기시킨다(3:2, 5). 그리스어 표현 ἀκοή πίστεως는 ἀκοή와 πίστις의 해석에 따라 크게 4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

Abingdon Press, 1997), 75. 비교, J.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146; R. N. Longenecker, *Galatians*, 93-94.

기서 ἀκοή는 ‘들음’ 혹은 ‘선포’로 해석될 수 있고, πίστις는 ‘믿음 행위’ 혹은 ‘믿음의 대상인 복음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 간의 상이한 해석학적 조합에 따른 ἀκοή πίστewος의 4가지 다른 해석들은 다음과 같다:¹⁶⁾

- (1) 믿음으로 들음으로써(던; 브루스[F. F. Bruce]; RSV)
- (2) 들은 것을 믿음으로써(롱넥커[R. N. Longenecker]; NRSV, NIV, REB, NJB)
- (3) 복음 선포를 통하여(헤이스)¹⁷⁾
- (4) 믿음을 창출하는 능력을 가진 선포를 통하여(마틴[J. L. Martyn]; 헤이스)

주격 소유격 견해를 주장하는 헤이스와 보어(M. de Boer)는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를 거부한다.¹⁸⁾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대한 갈라디아인들의 믿음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격 소유격 견해에 대한 반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격 소유격 견해에 호의적인 윌리엄스(S. K. Williams)는 첫 번째 해석에 동의하면서, 믿음과 들음이 능동적인 동시에 수동적인 행위임을 강조한다.¹⁹⁾ 들음과 믿음은 나의 바깥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침투한 사건에 근거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내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윌리엄스는 πίστις를 ‘선포된 복음의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인간의 적극적 반응’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헤이스와 보어의 견해에 반하여, 갈라디아서 3:1-5에서 긴급하게 갈라디아인들을 설득하기 원하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차용할 리는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리스어 단어 ἀκοή의 일차적인 의미는 선포라기보다는 들음이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믿은 갈라디아인들의 과거 경험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어 표현 ἀκοή πίστewος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로마서 10:8-10, 17에서 자세히 풀어서 전달해 주고 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이 중요한 로마서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16) 참조, M. C. de Boer, *Galatians: A Commentary*, 471-474.

17) R. B. Hays,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2nd ed. (Grand Rapids: W.B. Eerdmans, 2002), 196.

18) R. B. Hays, *The Faith of Jesus Christ*, 131; M. C. de Boer, *Galatians: A Commentary*, 174.

19) S. K. Williams, *Galatians*, 83-84.

(10:8-10) ‘네 가까이 그 말씀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속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바로 그 믿음의 말씀입니다. 곧 그대가 입으로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ἐγγύς σου τὸ ῥῆμά ἐστιν ἐν τῷ στόματί σου καὶ ἐν τῇ καρδίᾳ σου, τοῦτ' ἔστιν τὸ ῥῆμα τῆς πίστεως ὃ κηρύσσομεν. ὅτι ἐὰν ὁμολογήσῃς ἐν τῷ στόματί σου κύριον Ἰησοῦν καὶ πιστεύσῃς ἐν τῇ καρδίᾳ σου ὅτι ὁ θεὸς αὐτὸν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σωθήσῃ· καρδία γὰρ πιστεύεται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στόματι δὲ ὁμολογεῖται εἰς σωτηρίαν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님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ἄρα ἡ πίστις ἐξ ἀκοῆς, ἡ δὲ ἀκοή διὰ ῥήματος Χριστοῦ

이 로마서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복음을 “믿음의 말씀”(τὸ ῥῆμα τῆς πίστεως, 10:8)이라고 칭한다.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믿음의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려 준다: (1) 예수가 우주의 주이시다; 그리고 (2)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다 (10:9-10).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의 마음 안에서 믿음의 반응이 발생하는데, 그 믿음의 반응은 말씀에 담긴 위의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반응을 의미한다. 믿음의 말씀이 포함한 위의 두 가지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 성취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요약의 의미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제시한 구원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전적 수용을 의미한다.²⁰⁾ 인간의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 처하게 하고, 종말론적 심판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한다. 이처럼 로마서 10:8-10, 17은 갈라디아서 3:2, 5의 ἀκοή πίστεως에 대한 바울 자신의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²¹⁾ 이런 면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된 ἀκοή πίστεως에 대한 네 가지 해석 가능성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 옵션들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제 이러한 해석학적 분석을 근거로, 이 본문에 대한 『새한글성경 신약

20) 이 본문의 해석에서도 모건은 여전히 πίστις를, 선포된 말씀에 대한 어떠한 상관성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신뢰로 해석한다. 참조, T. Morgan,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Pistis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Empire and Early Churches*, 286.

21) 참조, B. Byrne, *Romans*, 321-325; R. N.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855.

과 시편』의 번역을 관찰해 보도록 하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그리스어 표현 *ἀκοή πίστεως*가 포함된 갈라디아서 3:2, 5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율법의 행위들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는 듣고 믿은 것에 기초해서 받았습니까? … 여러분을 도와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에 기초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들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듣고 믿은 것입니까?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τὸ πνεῦμα ἐλάβετε ἢ ἐξ ἀκοῆς πίστεως; … ὁ οὖν ἐπιχορηγῶν ὑμῖν τὸ πνεῦμα καὶ ἐνεργῶν δυνάμεις ἐν ὑμῖν,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ἢ ἐξ ἀκοῆς πίστεως;

흥미롭게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가는 이 그리스어 표현의 번역에서 매우 재미있는 입장을 취한다. 번역가는 위에서 제시된 4가지 해석 가능성들 중, 처음 두 가능성들처럼 *πίστις*를 믿는 반응의 행위로 이해한다. 그러나 번역가는 갈라디아인들의 성령 체험의 근거를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듣고 믿은 것” 즉 그들이 듣고 믿은 대상인 ‘선포된 복음’에게로 돌린다. 이를 통해서 번역가는 믿음의 행위보다도,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헤이스의 견해에 다소 동조하게 된다.²²⁾ 다시 말하면, 번역가는 *πίστις*가 품고 있는 선포된 복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라는 인간 마음에서 발생한 행동적 요소를 인정하는 반면에, 갈라디아인들의 성령 체험을 전적으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1-5에서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중요성을 부차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선포한 복음에 대한 갈라디아인들의 믿음의 반응을 더 강조하고 싶다.²³⁾ 이런 면에서 볼 때, 여기서 번역가는 바울의 강조점을 헤이스와 함께 놓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만약 번역가가 “듣고 믿은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들음”과 “믿음”의 행위적 요소들을 추상명사화하고 있다면, 그의 번역은 바울의 강조점을 잘 살리고 있다. 따라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이 본문에서 “듣고 믿은 것”이 그 대상인 선포된 복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듣고 믿은 행위를 의미하는지 각주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그리

22) 참조, R. B. Hays,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287; M. C. de Boer, *Galatians: A Commentary*, 193.

23) J. D. G. Dunn, “Ex Akoēs Pisteōs”, *Ex auditu* 16 (2000), 36.

스어 전치사 ἐκ를 “기초해서”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치사는 기원을 의미하면서, ‘~로부터 기인하여/말미암아’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 그리스어 전치사 ἐκ를 번역할 때, 이러한 해석학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5. 아브라함과 πίστις(갈 3:6-22)

바울 서신서들에서 그리스어 단어 πίστις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곳은 바울이 아브라함을 논의하는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4장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그리스어 단어의 명사형은 14번(갈 3:2, 5, 7, 8, 9, 11, 12, 14, 22, 23[2x], 24, 25, 26), 동사형은 2번(3:6, 22), 그리고 형용사형은 1번(3:9) 등장한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설정을 가능하게 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 πίστις의 의미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πίστις의 의미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이유는 갈라디아를 찾아 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으로 보인다.²⁴⁾ 그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일들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⁵⁾ 이에 바울은 창세기 15-17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간적 순서에 주목하면서, 아브라함의 칭의가 그가 ‘이방인이었을 때’ 보여 준 믿음에 근거해, 그리고 ‘아직 할례를 포함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인들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현재적 믿음 체험을 아브라함의 과거적 믿음 체험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갈라디아인들의 믿음이 ‘그 약속의 자손’인 예수를 향한 동일한 믿음임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는 이방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 됨을 선포한다(갈 3:7, 17). 물론, 여기서 바울이 풀어야 할 신학적 난제는 갈라디아인들

24) 제2성전시대 유대인들의 아브라함 이해를 위해서 다음 책에 담긴 논문들을 참조하라. 참조, S. A. Adams and Z. Domoney-Lyttle, eds., *Abraham in Jewish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London; New York: T&T Clark, 2019).

25) 참조, J.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9-20; J. L. Martyn,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7), 117-126; F. J. Matera, “Galatians and the Development of Paul’s Teaching on Justification”, *Word & World* 20:3 (2000), 230-245; M. D. Nanos, *The Galatians Debate: Contemporary Issues in Rhetorical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의 믿음과 칭의는 그들이 경험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증거됨에 반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령 체험에 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이 난제를 “성령의 약속”(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νεύματος, 3:14)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해결한다.²⁶⁾ 바울은 성령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자손들의 탄생에 대한 약속을 성취한 분임을 자세히 설명한다.

최근 벌어진 바울에 대한 옛 관점과 새 관점 간의 다양한 해석학적 충돌 속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인물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따라 바울이 생각하는 πίστις의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논의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크게 두 가지 견해들로 대변된다: (1) 구원을 얻기 위한 성도들의 믿음의 표본이라는 ‘개인적 구원론적 견해’, 그리고 (2) 이방인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의 유입과 수용이라는 ‘공동체적 사회학적 견해’.²⁷⁾ 그러나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개인적 믿음 및 칭의와 더불어, 그가 후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미친 공동체적 사회학적 의미 둘 다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듯 보인다.²⁸⁾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에 대한 위의 두 견해들을 지나치게 경직된 이분법에 근거한 첨예한 갈등 구조 속에 위치시키는 일부 학자들의 편협함을 거절해야 한다. 특별히, 주격 소유격 견해를 견지한 일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언약적 신실함으로만 이해되어야 하고, 그의 언약적 신실함의 모범은 예수의 신실함이라고 주장한다.²⁹⁾ 이들에 따르면, 예수와 아브라함의 언약적 신실함을 본받음으로써,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약속에 동참하는 언약적 파트너들’이 될 수 있다.³⁰⁾ 이들의 견해에 다소간의 설득력이 존재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현재적 믿음 체험을 예수의 신실한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과거적 믿음 체험과 연결시키고 있다. 바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갈라디아인들의 πίστις는 예수의 희생의 죽음을 모범으로 하는 신실함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26) 이승현, “아브라함과 성령을 통해서 본 갈라디아인들의 칭의 이해”, 『신약논단』 27 (2020), 239-260.

27) 참조, D. Shaw, “Romans 4 and the Justification of Abraham in Light of Perspectives New and Newer”, *Themelios* 40:1 (2015), 53; Chris Tilling, “Abraham in New Testament Letters”, S. A. Adams and Z. Domoney-Lyttle, eds., *Abraham in Jewish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London; New York: T&T Clark, 2019), 130-131.

28) J. M. G. Barclay, *Paul and the Gift*, 482-483.

29) 참조, R. B. Hays, “Galatians”, L. E. Keck, ed., *The New Interpreter's Bibl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255-256.

30) 참조, N. T. Wright,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2013), 774-1042.

를 통해서 시작된 종말론적 새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는가, 즉 종말론적 새 시대를 여는 πίστις의 구원사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23-29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그러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πίστις 분석에 앞서, 3:6-22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연관된 πίστις와 그 번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2:16과 3:22에서 그리스어 표현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를 두 번 사용한다. 그리고 3:7, 8, 9, 11, 12에서는 축약된 형태로 ἐκ πίστεως를 언급한다. 3:11에서 이 표현은 하박국 2:4의 직접적 인용이므로, 이 경우를 제외한다면, ἐκ πίστεως는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의 축약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³¹⁾ 갈라디아서 3장에서 ἐκ πίστεως는 이방인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혹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한 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근거로 기능한다(3:7, 8, 9). 반면에, 바울에 따르면, 율법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방인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이다(3:11, 12). 그리고 바울은 ἐκ πίστεως와 거의 동의어적 표현으로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를 차용한다(2:16; 3:14, 26). 물론, 주격 소유격 견해는 이 표현들에 담긴 πίστις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죽음을 든다. 그러나 3:26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πίστις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의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그리고 동사형 ἐπίστευσεν를 통하여, 3:6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 행위와 갈라디아인들의 믿음 행위가 둘 다 ‘그 약속의 자손’ 예수를 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갈라디아인들과 아브라함의 믿음 행위들 간에 놓인 이러한 유사성은 예수의 신실함을 그들이 따라간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순종의 죽음을 감내한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한 수많은 자손들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마찬가지로, 과거 갈라디아인들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를 분명하게 표현했다.³²⁾ 이런 면에서 볼 때, 갈라디아서 3장의 πίστις는

31) M. C. de Boer, *Galatians: A Commentary*, 192-93; J. D. G. Dunn, “EK ΠΙΣΤΕΩΣ: A Key to the Meaning of ΠΙΣΤΙΣ ΧΡΙΣΤΟΥ”, R. B. Hays, et al., eds., *The Word Leaps the Gap: Essays on Scripture and Theology in Honor of Richard B. Hays* (Grand Rapids: Eerdmans, 2008), 351-366.

32) 저자는 고폐타(N. K. Gupta)가 제시하는 언약적 믿음주의(covenantal pistism)가 갈라디아서의 πίστις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참조, N. K. Gupta, *Paul and the Language of Faith*, 153-154.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이방인들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갈라디아인들의 긍정적 수용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³⁾ 물론, 이 긍정적 수용의 반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아브라함과 성도들 간에 형성된 새로운 관계의 토대인 상호 신뢰와 이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순종으로 발전한다(5:6).³⁴⁾

이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ἐκ πίστεως를 번역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관찰해 보도록 하자:

(3:7) 믿음에 기초해서 사는 사람들(οἱ ἐκ πίστεως)

(3:8) 믿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ἐκ πίστεως δικαιοὶ τὰ ἔθνη ὁ θεός)

(3:9) 믿음에 기초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οἱ ἐκ πίστεως εὐλογοῦνται σὺν τῷ πιστῶ Ἀβραάμ)

(3:11) 의인은 믿음에 기초해서 살 것이다(ὁ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

(3:12) 율법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ὁ δὲ νόμος οὐκ ἔστιν ἐκ πίστεως)

갈라디아서 3:7, 9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οἱ ἐκ πίστεως라고 칭한다. 여기서 바울은 πίστις를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존재론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의 표식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자전적 증거로, 바울은 2:16-20에서 이미 자신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예수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가는 οἱ ἐκ πίστεως를 “믿음에 기초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함으로써, πίστις의 의미를 성도들의 현재 삶을 규정하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πίστις가 성도들의 현재 삶의 원칙인 것은 맞지만, 갈라디아서 2-3장에서 바울은 πίστις를 통해서 어떻게 갈라디아인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과거 구원사적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번역가는 바울의 의도를 다소 놓치고 있는 듯 보인다. 오히려, 여기서 그리스어 표현 οἱ ἐκ πίστεως는 그리스어 전치사 ἐκ를 기원으로 간주하여

33) S. K. Williams, *Galatians*, 84.

34) 참조, 이승현,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 신뢰, 믿음, 혹은 순종? - 모건(T. Morgan)의 Πίστις 이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168-195.

‘믿음으로 말미암는/기인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 표현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믿는 자들”(οἱ πιστεύοντες)과 거의 동의어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사형 표현 οἱ πιστεύοντες가 “믿음에 기초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기에 더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3:8에서 ἐκ πίστεως를 “믿음에 기초해서”라고 번역하여, 하나님이 허락하는 칭의의 근거로 바르게 번역하고 있다. 3:12에서도 이 표현은 ‘율법이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무난하게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리스어 전치사 ἐκ를 기원으로 간주하여, ἐκ πίστεως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믿음으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리스어 표현 ἐκ πίστεως와 달리,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는 상대적으로 번역하기 수월하다. 따라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가는 2:16과 3:14, 26에서 이 표현을 “그 믿음을 통하여”라고 무난하게 번역하고 있다. 물론, 번역가는 πίστις를 일관되게 “믿음”이라고 번역한 채, 바울의 πίστις가 내포한 역동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혹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학자들에게 남겨두고 있다. 특이한 것은 3:9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지칭하면서 형용사 πιστός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격 소유격 견해의 학자들은 이 단어를 “신실한”이라고 이해하여, “(언약에) 신실한 아브라함”이라고 번역하기 원한다. 그러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신실한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지닌 모호성을 선호하지 않는다. 대신,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강조하면서, τῷ πιστῷ Ἀβραάμ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번역한다. 저자는 여기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가의 선택이 갈라디아서 3장 문맥에 좀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아니라, 이방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갈라디아 이방인들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의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6. 새로운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πίστις(갈 3:23-26)

갈라디아서 3:23-26에서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πίστις의 유무에 따라 두 시대로 구분한다: (1) 율법에 의해서 지배 받는 시대(ὑπὸ παιδαγωγόν, 3:25)와 (2) πίστις에 의해서 인도되는 시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엄격한 종말론적

시대 구분을 통하여 율법과 믿음을 강하게 대조하고, 이를 통해서 πίστις가 소유한 구원사적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한다. 바울은 2:16부터 현재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율법과 πίστις 간의 대조 속에서 자신과 갈라디아인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험을 묘사해 오고 있다. 그런데 3:23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죄 아래 갇혔던 시대가 πίστις의 도래로 막 내렸음을 선포한다. 여기서 바울은 정관사의 사용을 통하여 3:23의 πίστις가 바로 앞에서 언급된 그 πίστις임을 알려 준다. 그러나 이 본문에 담긴 πίστις의 특별성은 πίστις가 주격 소유격 견해나 목적 소유격 견해만으로는 충분히 표현될 수 없는 종말론적 실체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3:23-26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πίσ티ς 이해를 위해서 바울 학자들은 크게 3가지 수사학적 견해들을 제시했다: (1) 인격화(personification), (2) 실체(hypostasis), 그리고 (3) 환유(metonymy).³⁵⁾ 현재의 본문에서 바울은 πίσ티ς가 “도래”했고(ἐλθεῖν, 3:23; ἐλθούσης, 3:25), 또 “계시”(ἀποκαλυφθῆναι, 3:23)되었다고 선언한다. 이 두 동사들의 사용은 πίσ티ς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가장 궁극적 정점을 차지하면서, 예수의 등장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비교, 3:19).³⁶⁾ 바울에게 예수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취한 종말론적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하기에, 3:23-26에서 πίσ티ς도 단순한 인간의 믿음의 행위나 예수의 신실함을 초월하는 — 그러나 그 둘과 밀접하게 연관된 — 객관적이고도 종말론적 실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학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가능해진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πίσ티ς 이해를 πίσ티ς Χριστοῦ에 대한 제3의 해석학적 대안으로 제시한다.³⁷⁾

율법의 일들과 믿음 간의 긴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22에서 율법의 기능은 죄 아래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었다고 선포한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부정적 기능 이면에는, 인류를 새로운 가능성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존재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πίσ티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들 삶의 현실적 실

35) B. Schliesser, “‘Christ-Faith’ as an Eschatological Event (Galatians 3.23-26): A ‘Third View’ o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279.

36) J. L. Martyn,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62; B. Schliesser, “‘Christ-Faith’ as an Eschatological Event (Galatians 3.23-26): A ‘Third View’ o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284.

37) 참조, B. Schliesser, “‘Christ-Faith’ as an Eschatological Event (Galatians 3.23-26): A ‘Third View’ o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277-300; J. H. Pifer, *Faith as Participation: An Exegetical Study of Some Key Pauline Texts* (Tübingen: Mohr Siebeck, 2019); P. M. Sprinkl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as an Eschatological Event”,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Mass.: Hendrickson Publishers, 2010), 165-184.

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3:22의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는 3:23의 ‘그 πίστις’의 선행사로 기능한다. 3:22에 대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³⁸⁾ 그 약속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ἡ ἐπαγγελία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δοθῆναι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여기서 번역가는 목적 소유격 견해를 주 견해로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번역가는 πίστεως를 “믿는 믿음”이라고 두 번 강조해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어 표현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에 대해서 주격 소유격 견해를 취하던 목적 소유격 견해를 취하든지에 상관없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첫 번째,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을 가능하게 한 πίστις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알려 준다. 그리고 두 번째,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은 그 축복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오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요청됨을 알려 준다.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리스어 표현에 동사 πιστεύω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³⁹⁾ 흥미롭게도, 바울은 3:26에서 ‘그 πίστις’의 정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분명히 알려 준다(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3:26). 목적 소유격 견해는 3:26의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에서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발견한다. 그러나 쉽게 예상되듯이, 주격 소유격 견해는 이 표현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 있는 표현으로 치부한다.⁴⁰⁾ 그리고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와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사이에 쉼표를 삽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발견되는 영역, 혹은 성도들이 연합하게 된 영역이라고 주장한다.⁴¹⁾

그러나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에 관한 위의 두 견해들(혹은 세 견해들)에 대한 최종적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보여주는 번역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갈라디아서 3:23-26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38)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주석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라고 적고 있다.

39) 참조, P. R. Trebilco, *Self-Designations and Group Identity in the New Testament*, 68-121.

40) M. C. de Boer, *Galatians: A Commentary*, 242.

41) S. K. Williams, *Galatians*, 104.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서 보호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장차 나타날 때까지요 … 우리가 믿음에 기초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Πρὸ τοῦ δὲ ἔλθεῖν τὴν πίστιν ὑπὸ νόμον ἐφρουρούμεθα συγκλειόμενοι εἰς τὴν μέλλουσαν πίστιν ἀποκαλυφθῆναι … ἵνα ἐκ πίστεως δικαιωθῶμεν … ἐλθούσης δὲ τῆς πίστεως … Πάντες γὰρ υἱοὶ θεοῦ ἐστε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여기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가는 πίστις를 “믿음”이라고, 그리고 ἐκ πίστεως는 “믿음에 기초해서”라고 번역하고 있다. 번역가는 믿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직시하지 않음으로써, πίστις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πίστις가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적 행위, 혹은 예수의 신실한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어떤 종말론적 실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⁴²⁾ 그리고 여기서도 번역가는 ἐκ πίστεως를 “믿음에 기초해서”라고 일관되게 번역하고 있다. 믿음이 칭의의 기초가 됨은 분명하지만, 칭의의 기원(origin) 혹은 근원(source)으로도 볼 수 있음이 앞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26에 대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번역가는 그리스어 표현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에서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와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를 분리시킨다. 그리고 후자의 표현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를 앞선 ‘그 믿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딸 됨’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어 어순은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가 멀리 떨어진 πάντες γὰρ υἱοὶ θεοῦ ἐστε가 아니라, 바로 앞에 위치한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를 수식해야 함을 알려 준다. 그렇다면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물론, 일부 주격 소유격 견해자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신실함을 통해서”라는 번역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본문을 주도하는 πίστις의 종말론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πίστις를 단순히 “예수의 신실한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리스어 표현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에 대한 논쟁에서 갈라디아서 3:26의 그리스어 표현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가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이 표현의 해석과 번역에 대한 논쟁은 계속 진

42) N. K. Gupta, *Paul and the Language of Faith*, 145.

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와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는 분리되지 말고 함께 번역되어야 한다.

7.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πίστις*를 포함한 갈라디아서의 주요 본문들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번역은 번역가가 처한 역사적 환경, 그중에서도 그가 속한 현재적 신학 논쟁과 전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주요 본문들에서 *πίστις*와 *πίστις*를 포함한 그리스어 표현들과 연관된 신학적 논쟁들을 먼저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 표현들에 대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을 조사하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취한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도 관찰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제안들을 제시했다. 그리스어 단어 *πίστις*는 매우 역동적인 개념이다. 과거 이 단어는 영어의 경우 *faith*로 일관되게 번역되었으나, 최근 이 단어가 품은 다양한 의미장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번역되기 시작했다. 그리스어 단어 *πίστις*의 의미장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 선포된 말씀에 대한 인식론적 수용과 긍정적 반응, 신실한 관계의 기초로서의 상호 신뢰, 그리고 순종하는 삶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는 이 단어를 포함한 그리스어 구문, 문법적 위치, 그리고 문맥에 따라 다양한 뉘앙스를 소유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찰을 통해서 볼 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목적 소유격 견해를 선호하면서, *πίστις*를 일관되게 믿음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믿음이 포함한 긍정적 수용이라는 행위적 요소에 대한 강조를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보여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본저자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 경향성과 신학적 전제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어 단어 *πίστις*가 가진 의미의 역동성을 더 살리기 위해서, 다소간의 의역과 설명이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πίστις*를 포함한 특정 그리스어 표현들도 너무 일관되게 번역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ἐκ πίστεως*의 경우 “믿음에 기초하여”라고 번역해도 무난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믿음으로부터 기인하여’ 등으로도 번역될 수도 있다. 그리고 몇 군데의 본문에서, *πίστις*를 포함한 그리스어 표현들의 수식 대상을 그리스어 본문과 다소 다르게 결정한 곳도 눈에 띄었다. 아무래도, 특정 그리스어 본문에 담긴 문법적 모

호성은 번역가로 하여금 특정 결정을 선호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주석들을 통하여 그 결정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거나, 다른 해석학적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해 주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러나 이러한 약간의 논쟁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간결성과 일관성의 원칙을 통하여 매우 가독성이 높은 성서 번역을 우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적 표현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깔끔한 번역을 그 결과물로 내놓았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믿음, 예수-믿음, 주격 소유격, 목적 소유격, 아브라함.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faith, Jesus-faith, subjective genitive, objective genitive, Abraham.

(투고 일자: 2022년 5월 25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10월 14일)

<참고문헌>(References)

- 이승현, “고린도전서 11:23의 Παρεδίδετο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2 (2018), 45-67.
- 이승현,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 신뢰, 믿음, 혹은 순종? — 모건(T. Morgan)의 Πίστις 이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 (2021), 168-195.
- 이승현, “아브라함과 성령을 통해서 본 갈라디아인들의 칭의 이해”, 『신약논단』 27 (2020), 229-269.
- Adams, S. A. and Domoney-Lyttle, Z., eds., *Abraham in Jewish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London; New York: T&T Clark, 2019.
- Barclay, J. M. G., *Paul and the Gif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2015.
- Barclay, J. M. G., “Pure Grace?: Paul’s Distinctive Jewish Theology of Gift”, *Studia theologica* 68:1 (2014), 4-20.
- Barrett, C. K., *Luke the Historian in Recent Stud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0.
- Boer, M. C. de, *Galatian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 Bovon, F., *Luke the Theologian: Fifty-Five Years of Research (1950-2005)*,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6.
- Byrne, B., *Romans*, Sacra Pagina Serie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7.
- Dunn, J. D. G., *Beginning from Jerusalem, Christianity in the Making*, Cambridg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Co., 2008.
- Dunn, J. D. G., “ΕΚ ΠΙΣΤΘΕΩΣ: A Key to the Meaning of ΠΙΣΤΙΣ ΧΡΙΣΤΟΥ”, R. B. Hays, et al., eds., *The Word Leaps the Gap: Essays on Scripture and Theology in Honor of Richard B. Hays*, Grand Rapids: Eerdmans, 2008, 351-366.
- Dunn, J. D. G., “Ex Akoēs Pisteōs”, *Ex auditu* 16 (2000), 35-46.
- Dunn, J. D. 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1993.
- Easter, M. C., “The Pistis Christou Debate: Main Arguments and Responses in Summary”,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9:1 (2010), 33-47.
- Gupta, N. K., *Paul and the Language of Faith*, Grand Rapids: W. B. Eerdmans, 2020.
- Hays, R. B., “Galatians”, L. E. Keck, 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181-348.
- Hays, R. B.,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2nd ed., Grand Rapids: W. B. Eerdmans, 2002.
- Longenecker, R. N., *Galatians*, WBC, Dallas: Word Inc., 1990.
- Longenecker, R. N., *The Epistle to the Rom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W.

- B. Eerdmans, 2016.
- Marshall, I. H., *Luke: Historian & Theologia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8.
- Martyn, J. L.,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7.
- Matera, F. J., “Galatians and the Development of Paul’s Teaching on Justification”, *Word & World* 20:3 (Sum 2000), 239-248.
- Moessner, D. P., *Luke the Historian of Israel’s Legacy, Theologian of Israel’s ‘Christ’: A New Reading of the ‘Gospel Acts’ of Luke*, Berlin; Boston: De Gruyter, 2016.
- Morgan, T.,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Pistis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Empire and Early Church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Nanos, M. D., *The Galatians Debate: Contemporary Issues in Rhetorical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2.
- Oakes, P., *Galatians*, Paideia: Commentaries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5.
- Pifer, J. H., *Faith as Participation: An Exegetical Study of Some Key Pauline Texts*, Tübingen: Mohr Siebeck, 2019.
- Schellenberg, R. S., “Οἱ πιστεύοντες: an Early Christ-Group Self-Designation and Paul’s Rhetoric of Faith”, *New Testament Studies* 65 (2019), 33-42.
- Schliesser, B., “‘Christ-Faith’ as an Eschatological Event (Galatians 3.23-26): A ‘Third View’ o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8:3 (2016), 277-300.
- Shaw, D., “Romans 4 and the Justification of Abraham in Light of Perspectives New and Newer”, *Themelios* 40:1 (2015), 50-62.
- Sprinkle, P. M.,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as an Eschatological Event”,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0, 165-184.
- Tilling, C., “Abraham in New Testament Letters”, S. A. Adams and Z. Domoney-Lyttle, eds., *Abraham in Jewish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London; New York: T&T Clark, 2019, 127-148.
- Trebilco, P. R., *Self-Designations and Group Identity in the New Testamen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Williams, S. K., *Galatia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 Wright, N. T.,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2013.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Interpretation of πίστις in Galatians by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NKT NT&Ps)
and Some Interpretative Suggestions**

SeungHyun Lee
(Hoseo University)

In this paper, we are exploring how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hereinafter NKT NT&Ps) interpreted the controversial word πίστις in the key passages of Galatians. It is reasonably clear that an interpreter is not free from his or her own historical setting, including modern theological issues and debates. So,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ological debates regarding the Greek word πίστις and some key expressions with it in Galatians. Then, we critically examine NKT NT&Ps' interpretation of them and its theological position behind those interpretations. Finally, we want to make some critical suggestions for future amending of the translation or revisions.

The Greek word πίστις is a very dynamic word. In the past, it used to be translated as faith in English without any particular nuances added, but now with its various implications. The semantic field of the Greek word πίστις is very dynamic. It includes faithfulness to covenants, cognitive acknowledgement of the proclaimed Gospel message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it, mutual trust as a foundation for faithful relationship, and obedient life. Therefore, this word tends to include various implications depending upon its grammatical position, literary contexts, and theological orientation of the passages where it is found. On the basis of our examination of the NKT NT&Ps, it seems to be in fond of the objective genitive view and translate πίστις as faith without adding any further implication of it. Furthermore, the NKT NT&Ps emphasizes the verbal action of human faith toward the proclaimed Gospel message. In general, the author agrees with the NKT NT&Ps in its translation of πίστις and theological position toward its multiple implications. Nevertheless, in order to emphasize the dynamic semantic field of the word the NKT NT&Ps may have to add some more words in its translation rather than simply rendering of it as faith. Also, the NKT NT&Ps tend to translate key Greek expressions with πίστις in a rather

rigid way. For example, in case of ἐκ πίστεως, it could be rendered as “on the basis of faith” as the NKT NT&Ps does, but sometimes, as “from/out of faith.” For the Greek preposition ἐκ mostly functions as source or origin. And in some places, the NKT NT&Ps changes the word order of the Greek expressions with πίστις to express the translators’ understanding of particular meaning of πίστις. In these cases, the NKT NT&Ps may add footnotes where it explains why it made those translating decisions. However, regardless of some controversial translations, it provides us with a very readable, reader friendly version of a Korean translation of the Bible. This makes us expect that the NKT NT&Ps will be especially welcomed by young generations of readers.